

갑옷입은 과학자 이천

정찬주 <소설가>

이 천은 지금의 안동군 도산면에서 군부판서 이 송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 이천이 세살 때, 외숙의 아들인 홍 방이 정변에 가담되어 이송 가문도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 천은 그의 동생 온과 함께 어느 승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이 천이 별장(別將)이란 벼슬을 얻게 된 것은 18세 되던 때였다. 그런 뒤 이 천은 태종 2년에 정식으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산 속으로 피신하여 별장에 앉게 될 때까지의 15년이 그의 어린 시절이 되는 셈인데, 이에 관한 사적 기록은 전혀 없다. 막연히 앞뒤를 맞추어 생각해보자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무과에 급제한 사실만으로도 비범한 소년이었음에 틀림없다. 더불어 그의 동생 이 온도 태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자면 정규학교를 나오지 않고 독학으로 국가고시를 합격한 셈이다.

세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이 천은 국토방위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는 타고난 지략을 발휘하여 동해

안과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섬멸하고 그들의 본거지인 대마도까지 정벌하는 전공을 올렸다.

그가 평안도 도절제사로 있을 때는 서북쪽의 변방에서 자주 침략해오는 오랑캐들을 물리쳤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본거지까지 소탕하여 잃은 땅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함경도 절제사 김종서와 힘을 합쳐 6진을 설치한 후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 정착시켰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천의 능력은 무력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과학 기술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제기(祭器)를 주조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았는데, 세종의 눈에 들어 하사품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과학 기술자로서 재주와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경자자(庚子字)라는 불품없는 활자를 모양새 있게 고치고, 갑인자(甲寅字)의 주조 기술도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세종 15년에는 간의 제조(簡儀提調)가 되어 간의, 혼의 양부일구, 일성정시의, 규표, 자격루 등의 기구를 개량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밖에도 이 천은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들어가 그곳의 발달된 문물을 연구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데 힘썼다. 중국에서 돌아온 이 천은 종경이라는 약기를 만들어

조정의 의식에 사용토록 하였고, 무기의 개량에도 관심을 갖고서 화포의 제조, 창검 등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천은 학문 쪽으로 뜻을 펴지 못한 자신의 의지를 활자 만드는 것으로써 보상받으려 했는지 모른다. 활자를 개량하여 당시의 인쇄술을 발전시키는 데 그의 업적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활자 인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활자 인쇄는 보잘것 없었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내우외침이 잦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평화롭지 못할 때는 무인이 득세하여 병기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마련이며, 나라가 안정이 되면 문인들에 의해 학문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활자 주조나 인쇄술이 빛을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활자 주조나 인쇄술의 발달은 그 시대의 국력에 비례한다고 해도 틀림없다. 고려시대에 활자주조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무인 정권의 지속과 원나라 지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야 비로써 태종 3년에 주자소가 설치되었고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다. 그러나 계미자는 정교한 주자도 아니었고 이를 이용한 인쇄술도 지극히 미숙한 단계였다.

활자 주조술과 인쇄술은 조선시대 태평성대라 할 수 있는 세종 임금 때에야 크게 발달하였다.

세종은 학문을 널리 펴고자 많은 책들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하는 데 불편이 많은 계미자를 개량해야 하였다.

그러나 활자 주조나 인쇄술에 애정을 갖고 있는 선비는 드물었다. 할 수 없이 세종은 무인 출신인이 천을 떠올렸다.

‘맞아, 이 천이란 사람이 적임자야. 아주 훌륭한 제기(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를 만들어 그에게 상을 내린 일이 있지.’

그때, 세종은 이 천이 만들었다는 제기를 보고 상을 내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 상은 세종이 궁밖을 나다닐 때 타고 다니던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내구마’라고 불렀다.

세종은 친히 이 천을 이전으로 불러들여 명했다.

“그대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서 불렀소. 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백성을 위한 일이니 책임자가 되어 주시오.”

세종의 간곡한 말에 이 천은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천은 먼저 활자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과 인쇄할 때 활자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동판을 제작하였다. 이때 만든 글자가 경자자인데 이것도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글자의 모양이 가늘고 컸다. 책을 찍기에는 더 개량 발전시킬 점이 많았다.

“이 천이라면 더 뛰어난 활자를 만들 수 있을게야. 활자를 만드는 데 있어 그의 재주를 따를 자는 아무도 없지.”

마침내 세종은 이 천에게 다시



명을 내렸다.

“지충추원사 들으시오. 그대는 그대의 지혜로 경자자를 만들어 짐을 매우 기쁘게 한 적이 있소. 다시 또 그대의 지혜를 빌어 활자를 만들 계획이오. 이번에도 책임을 맡아 주오.”

세종은 이 천에게 총책임을 맡게 하고 그 아래에 집현전의 직제학 김 돈, 직전 김 빈, 호군 장 영실, 첨지사역원사 이세형, 의정부사인 정 척, 봉상시주부 이순지, 훈련관 참군 이의장 등에게 이 천을 보좌하도록 당부했다.

이들은 당대의 최고 기술자들이었다. 갑인자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만들어졌다. 무려 20여만 자에 이르렀고, 자체는 ‘효순사실’, ‘위선음졸’, ‘논어’ 등에서 모양을 본뜨고,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이 쓴 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될 것은 이때 한글 활자가 만들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때 한글 활자는 갑인자의 부드러운 글자체와는 달리 고딕체로써 힘차고 고졸한 느낌이 좋아서 오늘날에도 회사 이름 등에 이용되고 있다.

아뭇든 조선시대를 통틀어 갑인자를 능가하는 수준의 활자는 없다. 그러니 갑인자를 일컬어 활자주조술의 꽃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공은 당연히 승문정책을 펴기 위해 활자주조계획을 세웠던

세종에게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찬사를 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천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갑옷입은 과학자

“과연 누가 문무의 직책을 그토록 잘 겸할 수 있었을까?”

세종은 이 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면서 2일 동안이나 조회를 폐하고 관청에서 그의



장례를 도와주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에게 ‘갑옷입은 과학자’라는 뜻의 익양(翼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세종 7년에는 3등공신으로 추록되기도 하였다.

문무를 겸비한 갑옷입은 과학자. 갑인자를 만들어낸 그의 혁혁한 공로 말고도 그의 무공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 18년 무렵,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은 오랑캐들의 노략질이 잦은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은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주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자연히 변방은 농경지가 황폐화되어 갔다.

회갑이 지난 나이의 이 천은 또 다시 장수로서 국방의 대임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천은 노구를 이끌고서 오랑캐의 무리를 하나씩 소탕하였다. 이 천의 용맹스러움에 오랑캐들은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이때도 세종은 그의 무공을 잊지 않고 내구마 한 마리를 하사하였다.

세종 19년에는 이 천에게 특별히 정헌대부호조판서 직에다 도절제사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만큼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국장제조(國葬提調)에 임명되어 능의 수리와 국상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군기감 제조로서 화기와 병기를 제조 개발하는 일 등도 맡았다 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닌가 싶다.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내에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익양관이 세워져 있다. 문무를 겸비한 이 천의 정신을 사관생도들이 본받게 하고, 그의 이름이 번 훗날까지 빛날 수 있도록 이름 붙여진 건물이라고 한다. (●)